

# 姜시장 “성장·자립·동행으로 보호종료아동 돕겠다”

### 지역과 함께 맞춤형 사업 추진 등 자립체계 강화 청년아웃리치 정책 도입...전담기관 인력도 확충

최근 보육원 출신 10대 2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광주시가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25일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성장·자립·동행 등 3개 방향으로 광주만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부는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5만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 시도 보호 종료 아동 정착금지원(1천만원), 주거급여 지원, 기존 주택 임대 매입 사업 등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나

‘근본적 고민과 동행’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은 “아동보호시설에서부터 보호 아동과 지역이 함께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공공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간 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심리치료, 건강, 체육 프로그램 등 아동의 성장과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이 원하면 누구나 주거 걱정 없는 100% 자립

지원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립전담기관과 무등자립생활관,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각각 30호씩 총 90호를 운영 중인데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추진할 60여개소를 추가해 임기 내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시설을 15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주거시설 150여곳이 확보될 경우 현재 광주지역에서 매년 평균 약 1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고 시설 입소 비율이 전국 평균 30% 내인 점을 감안할 때 주거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시장은 “청년아웃리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종로 시점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시장은 ▲청소년 디딤센터 추가 건립 ▲한국도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주거복지 사업 확대 등 2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 시장은 “생애주기별 온종일 통합 돌봄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광

주’를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장으로서 이들의 죽음에 대해 추모만 할 수 없었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아닌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마땅한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17년 이후 광주 보호종료아동은 5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94명이었지만 시설 거주 가능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연장되면서 올해는 7월까지 236명이 추가됐다. /박선강기자



민생 현장점검 영구임대 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장 방문의 날인 25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두암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북구 제공)

## 광주시,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행정력 집중

### 10월까지 선행 절차 마무리...11월 예타 제도전 목표

전남대학교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가운데, 광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이 신청한 새 병원 건립 사업은 전남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탈락한 이유는 용도지역 상황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6월 교육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12일에는 현재 의과 대학 부지 2만9천160㎡(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전남대병원 3만4천977㎡(제3종 일반 주거지역)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부지 전체(6만4천137㎡)를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용적률을 올려 고층, 대규모 건물을 짓기 위해서다. 시는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이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물리적으로 처리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조사 대상 신청을 위해서는 기재부 내부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완

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중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 입안 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칠 방침이다. 9월 시의회 협의, 10월엔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심의를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조급은 미뤄질 수 있으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 등을 조속히 시행해 새 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 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총력 대응

### 금지사 긴급지시...일제조사·위기정보자 전담체 추진

전남도가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도민 보호를 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김영록 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29일부터 읍·면 회합복지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장기 불명자 사실 조사와 병행해 2개월마다 단수·단전·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자에 대해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굴된 위기정보 입수자는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상담과 안부 살피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6일 문금주 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특별대책을 시달할 예정이다. 도는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이웃을 찾아 긴급 지원하고 민간 자원과

도 연계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권에서 탈락한 대상자는 재조사를 실시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통합사례관리사 상담, 복지상담콜센터(129) 상시 현수막 게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리플릿 배포, 소식지와 반상회보 등 집중 홍보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찾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복지 지원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 姜시장 공약 ‘수소트램’ 용역비 전액 삭감

### 시의회 산건위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인 ‘수소 트램’ 설치 용역 예산 1억원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결국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군공향교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삭감했다. 의회 산건위는 전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가 이날 삭감을 최종 결정했다.

산건위 소속 박수기 의원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마차 트램을 설치할 것처럼 용역부터 하는 것은 윤당치 않다”며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먼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수훈 의원은 “행정은 한번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동의한다고 보면 안된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용역 결과가 오히

려 시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트램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시는 2020년 8월 3억4천만원을 들여 발주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수소 트램 설치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포함시키기 위해 추경에 1억원을 편성했다. ‘수소 트램’은 광주 기아캐피탈스필드 야구장부터 종합버스터미널, 농성역까지 2.6km 구간으로 7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선강기자

## ‘적격자 없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재공모

전남도는 25일 “산하 공기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

원자 4명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난 22일 최종 후보자 2명을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추천했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전남도는 조만간 사장 공모 재공고하고 지원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신임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지만 자연될 경우 현 사장이 신임 사장 임명 시까지 업무를 맡거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추석**

## 박진수부각

PARKJINSOO BUGAK 농부

행복한 명절에  
사랑과 정성을 선물하세요.

NAVER 박진수부각

## 박진수부각 명절선물세트 판매!

3팩	13,000원
5팩	21,000원
8팩	34,000원
10팩	42,000원
12팩	50,000원

\* 찹쌀김부각 / 찹쌀다시마부각 선택 가능 \* 배송비 3,000원 별도

**농부마음(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19-19  
TEL. 062-941-8511 / 010-3602-6623